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다중역할 경험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손보영¹, 김수정^{2*}

¹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²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The Effects of Dual-Earner Couple's Gender Role Attitude and Work-family Experience on Marital Satisfaction

Bo Young Son¹, Soo Jeong Kim^{2*}

¹Division of Counseling and Industrial Psychology, Sunmoon University

²Division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부 각각의 성역할 태도, 다중역할 수행에서의 갈등과 향상의 경험이 자신과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호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맞벌이 부부 95쌍, 총 190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응표본 t검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경험 및 결혼만족도에 있어 부부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태도 및 다중역할 경험에 있어 부부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결혼만족도에 있어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하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호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편의 경우 자신의 성역할태도, 자신의 다중역할 향상이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결혼생활 만족에 있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내 자신의 다중역할 갈등이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있어 남편과 아내 각각의 영향과 상호간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self-effects and spouse-effects that impact marital satisfaction in sex role stereotypes, work-family conflict and work-family enrichment. 95 double-income coup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 paired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sex role stereotypes, work-family conflict, and work-family enrichment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sband and wife, but a husband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wife in marital satisfaction. In the next step, we considered variable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and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usband and wife. Work-family enrichment positively affected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hile the wife's satisfaction was positively affected by the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and negatively affected by her work-family conflict. This study suggests that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the education of husband and wife, and couple counseling should consider individual effects and spouse effects.

Keywords : Dual-earner Couples, Gender Role Stereotype, Work-family Balance,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Enrichment, Marital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Sangtaek Seo(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stseo@cbnu.ac.kr

Received September 8, 2020

Revised November 2,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결혼 가구 중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46.3%로 이중 30대가 49.9%, 40대가 54.2%, 50대가 50.5.8%로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1]. 198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이후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30대 맞벌이 비율, 여성의 M자형 취업 곡선 등은 특히 젊은 맞벌이 세대의 일과 가족 양립에 따른 어려움이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한국의 2019년 혼인건수는 239,159건임에 비해 이혼건수는 110,831건으로 혼인 대비 이혼의 비율이 약 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2],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일과 가족 양립에 따른 다양한 역할들에 놓이게 되면서 외벌이 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갈등 상황 및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족의 구성과 유지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존속 및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편화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구는 남편과 아내 모두 일과 가족 양립이라는 상황에 있다. 이에 부부는 각각 일과 가족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중역할(multiple role)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부의 다중역할 경험은 자연스럽게 부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여러 생활, 즉, 결혼에 대한 개인과 배우자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개인적 태도인 성역할태도는 자신과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 및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맞벌이 부부의 다중역할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 가부장적 사고의 영향으로 다중역할 경험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전제하여 기혼 직장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국한되어 고려되었다[3].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남성의 다중역할 경험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 특히 현재 맞벌이 가구의 남편들은 성장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에서 부각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경험은 부재하다. 그럼에도 근대적 성역할태도 및 평등한 가

사 분담과 다정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사회적 압력 속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다중역할 경험의 주체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 두 주체 각각의 경험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다중역할 수행에 있어 시간과 에너지의 한정으로 인하여 일-가족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가족 향상도 발생한다. 이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비록 다중역할이 시간과 에너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비용이 있지만 그 보다는 다중역할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5]. 즉, 다중역할 경험에서 갈등의 부재가 곧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갈등과 향상은 독립된 개념으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실증 연구들을 통해 점차 밝혀지고 있다[6, 7, 8, 9, 10]. 이에 다중역할의 갈등과 향상 모두를 고려하는 일-가족 균형의 관점에서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다중역할 갈등과 향상 모두를 고려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포함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서야 맞벌이 가구의 남성에 대한 연구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 대상들의 다중역할 갈등과 향상 경험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 속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상호영향까지 고려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중역할의 갈등 혹은 향상의 한 측면만이 아닌 동시에 발생하는 두 측면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내 남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의 일-가족 균형도 어렵다. 또한 남성도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중역할 병행에 대한 압력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다중역할 주체로서의 남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일-가족 균형의 관점에서 다중역할의 갈등, 향상과 개인적 태도인 성역할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부부의 상호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한 예방적 접근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만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접근과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제도 및 사회적 지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 결혼만족도에 부부 간의 차이가 있는가?
2.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지역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총 112쌍, 22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부 중 한쪽 편이 응답하지 않은 17쌍을 제외하고 총 95쌍, 190명의 맞벌이 부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부 평균 연령은 남편 39.24세, 아내 36.76세였다.

2.2 연구도구

2.2.1 다중역할향상

다중역할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Carlson, Kacmar, Wayne, & Grzywacz(2006)[11]이 개발한 총 18개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김수정, 김유진, 이혜진, 박지은(2012)[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역할에서 긍정적인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정 외(2012)의 논문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남편 .96, 아내 .96로 나타났다.

2.2.2 다중역할갈등

다중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arlson, Kacmar, & Williams(2000)[13]이 개발한 다중역할갈등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역할 갈등이 큰 것을 의미한다. Carlson et al.(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일→가족갈등(WIF)의 시간기반 0.87, 긴장기반 5.85, 행동기반 5.78과 가족→일갈등(FIW) 시간기반 0.79, 긴장기반 0.87, 행동기반 0.85였고, 본 연구에서는 남편 .91, 아내 .92로 나타났다.

2.1.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Demaris와 Longmore(1998)[14], Kulik(1999)[1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정우, 강기연(2001)[1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개의 5점 likert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며, 수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사용한 김명원, 강민주(2011)[17]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남편 .74, 아내 .5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79, 아내 .63으로 나타났다.

2.1.4 결혼만족도

맞벌이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orton(1983)[18]이 개발한 5문항을 장춘미(2001)[1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7점 Likert의 5개 문항과 10점 Likert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남편과 아내 자료에서 각각 .96과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료에서 각각 .95, .97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값을 구하였으며,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경험 및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다중역할 경험과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첨도 값을 살펴보면, 왜도와 첨도의 값이 Curran, West와 Finch(1996)[20]에 의해 추정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의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가

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table 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3.51	0.57	-0.09	-0.27
husband's work-family conflict	2.74	0.64	0.28	0.83
husband's work-family enrichment	3.74	0.65	0.03	0.22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6.20	1.01	-0.40	-0.87
wife's gender role attitude	3.59	0.52	-0.01	-0.17
wife's work-family conflict	2.84	0.68	-.07	1.60
wife's work-family enrichment	3.56	0.78	-1.14	4.27
wife's marital satisfaction	5.71	1.43	-1.23	1.46

$p < .05$, $N=190$

3.2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 및 결혼만족도에서의 부부 간 차이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 및 결혼만족도에 있어 부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에서는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만족도에 있어 부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났다($t=3.84$, $p<.001$).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생활에 있어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한다(21, 22, 23, 24, 25, 26). 이러한 일관된 결과들에 대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조운주, 한준아, 김지현(2012)(27)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역할불균형으로 인해 여전히 여성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주저하는 경향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결혼 후에도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기 쉽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가족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가사 및 육아의 주담당자로서 인식되므로 인한 부담감 혹은 주담당자로서 실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차이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근대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것(28, 29)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중역할 갈등과 향상의 경험 모두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부부의 경제 활

동이 선택이 아니게 되면서 가족 내 역할 수행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연구 대상 부부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역할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전통적 역할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 내 문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며, 육아와 관련한 가족문화적으로도 이러한 영향이 남아있어 성역할에 대한 의식적 태도와 자각에서의 차이, 실제 다중역할 경험에서의 차이가 없음에도 결혼 전반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Table 2.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gender attitudes, multi-role conflicts, and multi-role enrichment between working couples

	husband(n=95)		wife(n=95)		t
	M(SD)	M(SD)	M(SD)	M(SD)	
marital satisfaction	6.20 (1.00)	5.71 (1.43)	3.84**		
gender role attitude	3.49 (0.57)	3.58 (0.52)	-1.65		
work-family conflict	2.74 (0.64)	2.84 (0.68)	.26		
work-family enrichment	3.74 (0.65)	3.56 (0.78)	.06		

$p < .001$

3.3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해 남편과 아내 각각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 각각의 성역할태도와 다중역할 경험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 본인의 성역할태도($\beta=.42$, $p<.05$)와 본인의 다중역할 향상($\beta=.29$,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 본인의 성역할 태도가 유연할수록, 다중역할에서 향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table 3).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VIF 지수를 고려한 결과, 1.00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왔다.

Table 3.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gender role attitude and work-family experience of double-income couples 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B	β	t
(constant)	2.89		2.27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74	.42	3.50**
wife's gender role attitude	-.30	-.16	-1.36
husband's work-family conflict	-.06	-.04	-.037
wife's work-family conflict	-.05	-.04	-0.33
husband's work-family enrichment	.455	.29	2.95**
wife's work-family enrichment	.109	.08	0.81
R^2	.242		

* $p < .05$, ** $p < .01$

3.3.2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다중역할 갈등, 다중역할 향상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인 남편의 성역할태도($\beta=.39, p<.05$)와 아내 본인의 다중역할 갈등($\beta=-.26,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유연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높으며, 아내 자신의 다중역할 경험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table 4).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VIF 지수를 고려한 결과, 1.01 수준으로 양호한 수치로 확인됐다.

Table 4.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gender role attitude and work-family experience of double-income couples on wife's marital satisfaction

	B	β	t
(constant)	2.90		1.55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98	.39	3.15**
wife's gender role attitude	-.16	-.06	-.49
husband's work-family conflict	.16	.070	.66
wife's work-family conflict	-.56	-.26	-2.41**
husband's work-family enrichment	.07	.03	.33
wife's work-family enrichment	.23	.13	1.18
R^2	.20		

* $p < .05$, ** $p < .01$

이처럼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남편이 전통적 태도보다 근대적 태도를 가질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 남편의 태도가 더 강조되어 왔던 입장과 일치된다[30, 31, 32, 33]. 부부 모두가 평등적 성역할 태도인 경우 만족도가 높지만, 아내가 전통적 태도이고 남편이 근대적 태도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면 아내가 근대적 태도이고 남편이 전통적 태도인 경우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았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고선주(1997)[28]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결혼적응에는 아내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주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결혼과 함께 직장생활도 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결혼과 함께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는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이 남아있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여성의 선택과 선택에 따른 결혼생활에서의 변화와 적응에 있어 부부의 역할에 대한 남편의 평등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여성의 태도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있어 남편은 자신의 다중역할 향상이, 아내는 자신의 다중역할 갈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역할 갈등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다중역할 갈등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대로 다중역할 향상이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남성의 결혼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다중역할 갈등과 향상 경험의 정도는 비슷하나 전반적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이들이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다중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Leiter와 Durup(1996)[34]의 중단연구에서 취업 여성의 일로 인한 가족에서의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낮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보고한 여성들이 가족으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을 크게 느끼는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남성들의 경우 가족 갈등이 가족만족도와는 관계가 없거나[25, 35], 일로 인한 가족 갈등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로 인한 가족 갈등과 남성의 부모역할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36]. 이렇듯 다중역할 갈등, 향상에서의 성차가 없음에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있어서 여성이 갈등의 영향을 받고, 남성은 향

상의 영향을 받으며, 다중역할 경험 중 가족으로 인한 일에서의 향상에서만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의미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휴식, 안정을 취하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성역할태도에 있어 의식적 태도와 인식에서는 남녀 모두 평등적이고 유연하게 남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의 영향이 남녀 모두에게 남아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 결론 및 논의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부 각각의 개인적 태도인 성역할태도와 다중역할 갈등과 향상의 경험이 자신과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호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졸이상의 사무직 및 전문직군이 많이 포함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육수준 및 직종, 가정 수입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므로 향후 좀 더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 다중역할 경험 및 성역할태도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참여 방식 및 가사참여시간 등에 대한 측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결과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여성 혹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맞벌이 부부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미치는 상호영향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다중역할 갈등, 향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또한 여성과 비슷한 근대적이고 유연한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중역할 수행과정에서 갈등과 향상을 경험하고 있음으로 다중역할 경험의 주체로서 남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이 다시 확인되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다. 즉, 다중역할 갈등과 향상 경험에 있어 성차가 없음에도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감정 및

태도에 있어 남성은 자신의 다중역할 향상이, 여성은 자신의 다중역할 갈등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기혼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다중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보조적 존재로써 남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맞벌이 부부 모두에 대한 관심과 남녀 개인에게 차별화된 교육적, 상담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Trend Survey", 2019.
- [2] Statistics Korea, "The life of a woman in statistics", 2020.
- [3] H. S. Kim, O. S. Kim, "Toward Work-Family Enrichment: Positive Spillover of Resources across Two Domains", *Korean management Review*, vol. 39, no. 2, pp.375-407, 2010.
- [4] Crosby, F. J., & Jaskar, K. L. *Women and men at home and at work: Realities and illusions*. In S. Oskamp & M. Costanzo(Eds.), *Gender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Newbury Park, CA: Sage, pp.143-171, 1993.
- [5] Cook, E. P. "Role salience and multiple roles: a gender perspectiv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3, no. 1, pp.85-95, 1994.
DOI:<https://doi.org/10.1002/j.2161-0045.1994.tb00849.x>
- [6] Greenhaus, J. H., & Parasuraman, S. *Research on work, family, and gende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G. N. Powell(Eds.), *Handbook of gender and work*, Thousand Oaks, CA: Sage, pp.391-412, 1999.
- [7] Grzywacz, J. G. *Toward a theory of work-family facilitation. Paper presented at the 32nd Annual Theory Construction and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of the Person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Houston, TX, 2002.
- [8] Frone, M. R.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trick(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Washington, DC: APA, pp.143-162, 2003.
- [9] Grzywacz, J. G., & Butler, A. B. The Impact of Job Characteristics on Work-to-Family Facilitation: Testing a Theory and Distinguishing a Construc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10, no. 2, pp.97-109, 2005.
DOI: <https://doi.org/10.1037/1076-8998.10.2.97>
- [10] Wayne, J. H., Musisca, N., & Fleeson, W. Considering the role of personality in the work-family experience: Relationships of the big five to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4, no. 1, pp.108-130, 2004.
DOI: [https://doi.org/10.1016/S0001-8791\(03\)00035-6](https://doi.org/10.1016/S0001-8791(03)00035-6)

- [11] Carlson, D. S., Kacmar, K. M., Wayne, J. H., & Grzywacz, J. G. Measuring the positive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enrichment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8, no. 1, pp.131-164, 2006.
DOI: <https://doi.org/10.1016/j.jvb.2005.02.002>
- [12] S. J. Kim, Y. J. Kinn, H. J. Lee, J. E. Park, "A Validation Study of the Work-Family Enrichment Scale with Korean wo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2, pp.561-583, 2012.
DOI :<https://dx.doi.org/10.15703/kjc.13.2.201204.561>
- [13] Carlson, D. S., Kacmar, M. K., & Williams, L. J.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6, no.2, 249-276, 2000.
DOI : <https://doi.org/10.1006/jvbe.1999.1713>
- [14] DeMaris, A., & Longmore, M. A. *Ideology, power, and equity: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1996.
- [15] Kulik, L., Marital power relations, resources and gender role ideology: A multivariate model for assessing effec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30, no. 2, pp.189-207, 1999.
DOI : <https://doi.org/10.3138/jcfs.30.2.189>
- [16] J. W. Lee., K. Y. Kang. "Perception of Equity , Decision - Making Sty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 Dual - Career Coup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9, no.9, pp.137-152, 2001.
- [17] M. W. Kim, M. J. Kang, "The Effects of Double-Income Couples'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9, no.8, pp.25-35, 2011.
- [18] Norton, R. Measuring marital quality -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141-151, 1983.
DOI : <https://doi.org/10.2307/351302>
- [19] C. M. Jang. "The Effects of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14, pp.83-96, 2000.
- [20]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pp.16-29, 1996.
DOI :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21] P. D. Ki, "The mediating role of valuing children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in the longitudinal dyadic approac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22, no. 4, pp.31-52, 2018.
- [22] W. J. Park, B. S. Kim,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Couple's Meta-Mood and Emotional Expressivity on Marital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5, pp.2945-2967, 2013.
- [23] M. A. Suh, "The Influence of Attachment Injury and Emotion Regul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Apply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 25, no. 2, pp.327-345, 2017.
- [24] K. B. Yoon, Y. K. Ji, "Father Involvement,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 Earner Couples with Preschoolers: A Longitudinal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24, no. 3, pp.133-153, 2017.
- [25] I. J. Lee, "The effect of parenting involvement of fathers on marital satisfaction in dual earner couple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6, no. 1, pp.343-370, 2015.
- [26] G. Y. Cha, S. S. Kim, M. J. Kim, "The Effects of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 Middle-Aged Couples: Analysis Using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7, no. 2, pp.126-149, 2017.
- [27] Y. J. Cho, J. A. Han, J. H. Kim,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ged Under Six",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3, pp.33-60, 2012.
- [28] S. J. Ko, "Parental strain, mastery, sex role attitude, and dyadic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dual earner famil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5, no.5, pp.17-3, 1997.
- [29] K. J. Yoon,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5, no.4, pp.221-235, 1997.
- [30] S. Y. Jung, "The effects of dual-earner couple's power structure on marital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Ph.D dissertation Kyoung sang University, Jinju, Korea, pp.100-102, 2018.
- [31] H. S. Jun, M. A. Suh, "Effects of Conjugal Pow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4, pp.349-357, 2012.
- [32] S. Y. Jung, M. S. Lee, "The Effects of Dual-Earner Couple's Role Conflic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 Mediating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Couple Intimacy",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6, no. 1, pp.217-242, 2020.
DOI: <https://doi.org/10.18859/ssrr.2020.2.36.1.217>
- [33] Kulik, L. "Marital equality and the quality of long-term marriage in later life." *Ageing and Society*. vol. 22, no. 4, pp.459-481, 2002.
- [34] Leiter, M. P., & Durup, M. J. Work, home and in-between A longitudinal study of spillover,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2, pp.29-47, 1996.
DOI: <https://doi.org/10.1177/0021886396321002>
- [35] T. S. Hwang, "The Relation of Work-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92.

- [36] J. H. B, H. Y. Seo, S. H. Lee, "The Relations of Men's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with Their Paren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7, no. 2, pp.43-64, 2002.
-

손 보 영(Bo-Young Son)

[정회원]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상담, 교육, 다문화

김 수 정(Soo-Jeong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9년 4월 ~ 현재 : 마음당당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
- 2019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상담, 교육